

# 어? 마음을 열면... ㄹ!

표문화전당 예술극장 김성희 감독이 뽑은 개관 페스티벌 12개 작품



새로운 예술을 경험하는 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처음 시도는 낯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새로움과 흥미로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즐거운 체험도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9월 4일~21일)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기존 작품들과는 차별화된 형식이 많다. 공연을 즐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우선 '오픈마인드'가 되는 것.

“극장에서 선보이는 동시대 예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에서는 편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벼운 오락 위주의 문화 속에서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사유와 비평적 사고의 장을 만드는 게 바로 공공 영역에서 시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낯설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흥미롭게 조명할 작품들을 즐겨주세요.”

예술극장 김성희 예술 감독은 “참여 작가들 대부분이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간극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관 페스티벌 작품은 무용, 영상, 연극, 퍼포먼스 등 모두 33개에 이른다. 김 감독에게 두가지 리스트를 요청했다.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과 관람하는 데 수고로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챙겨봤으면 하는 추천작이다.

현재 전체 티켓 중 그룹을 중심으로 약 3분의 1이 판매된 상태. 작품 관람료는 무료부터 5만원까지. 광주시민에게는 오는 14일까지 공연 티켓을 5000원에 판매한다.

### ▲이런 작품이라면 접근하기 쉬워요

이집트 와엘 사키의 영상 작품 '카바레 십자군'은 기존 서구 시각 대신, 아랍의 눈으로 살펴본 십자군 전쟁 이야기로 마리오 네프 인형이 화자로 등장한다. 마카오 작가 마를레네 몬테이로 프레타스의 무용 작품 '상아와 살에 관하여-동상도 고통받는다'는 동상과 무도화를 소재로 광대와 시인 등이 등장하며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무용과 시각 연극 '봄의 제전'은 75마리의 분쇄된 소의 분진으로 한 편의 안무를 선보이는 작품이다.

광주의 8~14세 퍼포머 16명과 함께 하는 영국 작가 팀 에첼스의 '밤이 낮이 된다'는 것', 이이남·서현석 작가의 디지털 다큐멘터리 연극 '이이남 : 세컨드 에디션', 남아공 브렛 베일리의 오페라 '맥베스'와 퍼포먼스 설치 작품 'B전시'도 추천했다.

### ▲이 작품은 놓치지 마세요

한국의 김성환과 데이비드 마이를 디그



'피나는 노력으로 한'

### 편한 작품 원한다면

'상아와 살에 관하여...'

'카바레 십자군' '봄의 제전'

### 감독 추천작

'피나는 노력으로 한'

'만 마리의 호랑이' '내면'

14일까지 예매시 5000원



'야구에 축복을'



'만 마리의 호랑이'

레고리오의 음악극 '피나는 노력으로 한'은 한 여자가 그려낸 남자의 전기(傳記)로 영화, 라디오, 노래, 연극적 요소들이 결합돼 있다.

싱가포르 호추니엔의 '만 마리의 호랑이'는 아시아예술극장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비엔나 페스티벌이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신화와 역사, 구전 동화 속 호

랑이의 흔적을 재조합한 작품이다.

그밖에 한국과 일본의 협업한 연극 '야구에 축복을', 90세의 연출가 클로드 레지의 신작으로 죽음과 삶의 의미를 되묻는 연극 '내면', 영화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첫 공연 작품인 '열병의 방'을 추천했다. www.asianartstheatre.org. 문의 062-410-3617. /김미은기자 mekim@

왼쪽부터 놀이패 신명, 아이리아, 그린발레단·광주로얄발레단 공연 모습.

## 14색 페스티벌 열기 속으로

광주문화재단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제2회 14색 페스티벌은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축제다.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푸른연극마을의 공연으로 막을 연 페스티벌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2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에서 열린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엔'은 배우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이 하나된 무대였다.

5·18 방북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언젠가 봄날엔'은 '오월 광주'를 다룬 작품이지만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유쾌한 전개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주인공 박조금 역을 맡은 배우 지정남의 연기는 압권이었다. 그녀는 야외 공연이라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을 집중시키며 공연을 이끌어 갔고, 특히 35년간 구전을 떠돌던 아들을 떠나 보내는 마지막 부분의 표정 연기는 기억에 남는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김호준·김은숙 등도 극의 활력을 더하며 배우들과 타악주자들의 합도 완벽했다.

이어 3일에는 국악을 재해석한 '아이리아'가 흥겨운 퓨전국악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리아의 'Brand New Arirang' 공연은 가야금, 태평소 등 국

악기와 기가, 베이스 등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락의 아리랑을 선보였다. 본조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 전국의 아리랑을 테마로 DJ의 일렉트로닉을 결합하는 등 새로운 해석이 돋보였다.

연주자와 출연진의 노래에 객석을 채운 관객들은 "좋다, 열씨구"를 연발했고 무대를 울린 태평소 가락은 관객을 춤추게 했다.

###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엔'

### 아이리아·그린발레단 호응

### 콘서트 등 11일까지 계속

특히 무대 중앙에 펼쳐진 화면에는 남도의 풍경을 수록으로 담은 아름다운 영상이 곁들여졌고, 맥이 스며들며 산이 되고 나뭇잎이 바뀌는 미디어아트도 흥겨운 가락과 어우러졌다. 또 찬송소리를 내며 장구 연주자가 등장해 가수와 무대를 오가며 가락을 주고받는 장면은 이날 공연의 백미였다.

4일 그린발레단과 광주로얄발레단이 함께 선보인 '해설이 있는 발레'는 다양한 발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였다.

'한여름밤의 꿈', '프레스코' 등 군무진

들의 공연에 이어 펼쳐진 돈키호테 3막 중 '그랑 파드되'는 바질과 키트리의 화려한 개인기가 돋보인 무대로 눈길을 끌었다. 또 바흐의 음악을 배경으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의 비극적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한 정재은·최원준의 컨템포러리 발레 '돌이킬 수 없는'은 기존 클래식 발레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감성을 전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 국립발레단 김리희·정영재의 '탈리스만의 그랑 파드되'는 파워풀한 테크닉과 세련된 감성 연기로 박수 갈채를 받았다. 특히 마지막 커튼콜 때 2인무를 선사한 6명의 무용수가 '돈키호테' 음악에 맞춰 다시 한번 짧게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인 점도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K.에듀댄스컴퍼니의 '우리들의 푸르른 날을 향하여'(6일), 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다락콘서트'(7일),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아동극 '도깨비 방망이'(8일), 아트컴퍼니 원의 '우리들의 이야기'(9일), 전통문화연구회 열우의 '인수화풍'(10일), 극단 청춘의 국악뮤지컬 '굿문'(11일·오후 5시30분)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은 모두 빛고을시민문화관(오후 7시30분)에서 열린다. 문의 062-670-7444. /김미은기자 mekim@

/오광록기자 kroh@

### 유·스퀘어청년작가 문선희 개인전 14일까지



'84879-04'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선희씨의 개인전이 14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는 '문다'.

문씨는 지난 2014년 3년간의 발굴 금지 기간이 해제되고 다시 사용 가능한 땅이 된 4800여 곳의 구제역·AI 매몰지 중 100여 곳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이곳은 지난 2011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로 인해 수많은 돼지와 닭, 오리 등이 매몰된 곳이다. 언뜻 보면 아름다운 추상화처럼 보이

는 사진들은 자정능력을 잃은 대지와 살처분 도구로 쓰였던 비닐들을 근접 촬영한 것들이다. 문씨는 살처분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대신 과도한 매몰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대지와 그 위에서 자라나고 죽어가는 풀들을 촬영했다.

작가는 "작품들은 합리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 의해 산 채로 매장된 동물들과 함께 우리들의 인간성마저 문허바린 땅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전남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Praha', '바람이 분다', '우리 동네' 등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360-843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개림동 ● 한화성명 ● 구한미소평 ● 동부소방서 ● 북경랑 한의원

진료문의 **(062) 227-7575**